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23년 3월 29일(수) 14:00
- 장 소: 의원 회의실(3층)
- 출석위원: 최동수, 김동환, 김정훈, 박재형, 이명우, 최인준

- 심사안건
 - 2023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의 건

○간사 하현영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정팀장 하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3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출장계획의 당사자이신 김명희 위원님께서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여서 위원장이 공식인 관계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구의회 의원이신 최인준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직으로 자리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최인준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은 강북구의회 의원 최인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결정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선에 의하되, 구두 호선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호선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인준

김정훈 위원님께서 최동수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동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동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추천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의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추천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안건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동환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심사위원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동수

김정훈 위원님께서 김동환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동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동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강북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는 강북구의회 의원 및 지원직원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현영

본 심사에 앞서 2023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주목적은 선진국가의 복지, 문화, 사회기반시설 등 우수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구 행정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출장지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복지선진국인 핀란드의 장애인 협회를 방문하여 북유럽의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모델을 이해하고, 헬싱키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적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노르웨이의 자원 재활용센터 및 친환경 유통매장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슬로 및 베르겐의 스마트시티 방문을 통해 우리구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위 3개국을 출장국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부터 6월 21일 수요일까지 6박 9일간이며, 출장자는 의원 7명, 지원직원 2명으로 총 9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무국외출장 일정입니다. 6월 13일 저녁 출국하여 6월 14일에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하여 헬싱키에서는 핀란드 신체장애인 협회 및 헬싱키의 중앙 도서관인 오디 도서관을 방문하고, 6월 15일에는 스톡홀름 시 구의회 및 시청사 건물을 방문하며, 6월 16일에는 노르웨이의 자원재활용센터 및 친환경 유통매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6월 17일에는 오슬로의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하고, 6월 18일에는 송네 피오르를 방문하여 자연환경을 관광 자원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6월 19일에는 베르겐의 스마트시티 홍보 센터를 방문한 뒤 6월 21일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출장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요예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일비, 식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산출하였고, 항공료 및 선박비는 실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총 산출금액은 의원은 이천팔백 육십사만 육천삼백 삼십원(28,646,330원), 직원은 팔백만 일천팔백 이십원(8,001,820원)으로 총 삼천육백 육십사만 팔천일백 오십원(36,648,150원)입니다.

방문일정, 경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 내부 사정이나 방문국의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수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출장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방문기관들은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간사 하현영

네, 협의가 됐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수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자료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간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장일정 2페이지, 전문기관 공식기관 방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지 관계자들의 브리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준비 다 되셨나요?

○간사 하현영

네, 현장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협의가 된 것까지 공식 방문지로 적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에 누가 나올지 까지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가능한 시설을 적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통역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간사 하현영

통역까지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전문 통역을 의뢰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통역 할 수 있는 분을 별도로 섭외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현지인을 섭외하시는 건가요?

○간사 하현영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간사 하현영

참고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다녀왔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일반적으로 출장 목적 보시면 주로 재활용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아마도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선진국이고, 잘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멀리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사 하현영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의 다양하게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이 또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지 관련해서 북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의견을 모아 지역을 선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행선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날짜를 보면 노르웨이에 좀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노르웨이는 주로 어떤 데를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간사 하현영

노르웨이는 현장방문과 공식방문 모두 다 스마트시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2~3년 전부터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참고자료의 노르웨이와 우리 구 비교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도 해당 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로서 관련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저는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출장비용 산출한 것을 보면,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이 있는데, 이 중 일비는 일반적으로 평균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사 하현영

일비는 하루 동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정액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 공무원부터 지방 공무원까지 모두 같은 기준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여비 규정에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에도 있는 표준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경비라 보이는데, 그런 명목이겠죠?

○간사 하현영

네, 안 쓸 수 없는 금액이라 보시면 될 정도로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반 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식사 제공, 픽업 등에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모아서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회사는 인정을 해주죠. 공무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하현영

그런 염려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금액으로만 편성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부담인가요?

○간사 하헌영

네, 맞습니다. 산출된 여비 예산 이상의 금액은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비는 없으시죠?

○간사 하헌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수

의원별 업무 내역에 따라 7명의 의원이 맡은 바를 섹션화 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간사 하헌영

네, 맞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장애인시설이나 자원 재활용 시설 관련 분야에 배정을 했고요. 가시기 전에도 해당 분야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다녀와서도 보고서 작성 등 개인별 업무수행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평소 관심분야와 소속 위원회 성격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동수

하나 당부할 것은, 만약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막연하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고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비교해보면서 인지를 먼저 하시고, 해외에서도 이런 비교하여 습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바라요. 장애인복지도 왜 필요한지 등 나름대로 사전지식을 습득을 하고,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의정활동의 일환을 볼 때, 사전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지 않나.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가 못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국회도 시의회도 구의회도 헌법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국외출장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해외 관광성 외유입니다. 일탈행위가 있어선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탈 행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일탈행위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선진지의 여러 지역과 기관을 방문한 다음에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만듭니까?

○간사 하헌영

네 맞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의원님들의 소속 위원회와 계획서상 의원별 업무 내용에 맞게 충실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스마트시티를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써야할 것 같은데요. 다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녀온 후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잘 확인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의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수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라고 다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한국은 5G 등 앞선 게 있을 것이고, 반면 외국이 더 잘되어 있는 점도 있을 테니 이를 비교를 잘하여,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책임 맡으신 의원님들이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점을 잘 비교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서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책·입법적으로 성과를 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사무국에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팀이 있으니, 연수 전중후로 실질적

으로 입법적·정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길 당부 드립니다.

○간사 하현영

해당 팀에도 공조를 통해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수

하나 당부하는 건 다녀온 후 스마트시티나 복지정책에 대해 의원님 간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날그날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한국에 왔을 때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책을 제안할 때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김정훈 위원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도 해안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비교를 하셔서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서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항공권은 이코노미 끊은거죠?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차이가 없는 거죠?

○간사 하현영

네, 차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환

간혹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니, 문제가 붙어지지 않도록 체크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혹시 공항 측에서 불필요한 의전을 받는 건 없는 거죠?

○간사 하현영

네, 없습니다.

○최인준 위원

얼마 전 뉴스에서 모 국회의원이 공항 의전실 사용 관련 내용이 나와서, 불필요한 의전은 필요 없다는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현지 이동수단은 어떠한가요? 교통수단은 확보가 되었나요?

○간사 하현영

네, 확보 되었습니다. 미니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출장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출장 총예산인가요?

○간사 하현영

출장 지역에 따라 가능한 범위의 일비, 식비, 숙박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운임의 경우 실비 개념으로 영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 경비는 예산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한 것이고, 현지에서는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총 출장경비는 아닌 거죠?

○간사 하현영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 의원

제 말씀은 현지 통역이나 버스를 운영하려면 이거 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텐데, 이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는 거죠.

○간사 하현영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현지 통역비와 교통비는 필요한 만큼 지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환

중요한 건 각 기관을 방문하면 기관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답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당 기관과 연락하는 등 날짜를 협의하여 담당자를 만나야 훨씬 답사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가셔도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쪽 생활을 잘 모르고, 업체에서도 형식적으로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시간이 있으니 기관 사이트 등 검색을 통해 연락을 해보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방문시기가 적합하신 거죠? 현장 공휴일이나 기관 연락 등 종합적으로 말이죠.

○간사 하현영

네 확인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리고 현지 감염병 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간사 하현영

지금 현재 상황에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위원장 최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섯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종합평가 ‘적정’으로 심사해주셨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의결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